

1896-1898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한 필리핀인민의 투쟁과 그 교훈

리 선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서는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없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고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36페이지)

력사는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서는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없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1896-1898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두 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 단계는 카티푸난의 지도밑에 필리핀인민의 혁명투쟁이 개시되고 적극화된 시기이다.

1872년에 일어난 까위뽉폭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은 필리핀인민의 반에스빠냐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폭동을 진압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필리핀인민에 대한 식민지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필리핀의 많은 부르쥬아-지주출신지식인들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망명하였다. 그러한 망명자들중에서 대표적인물이였던 필리핀의 부르쥬아민주주의자인 호세 리쌀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인종론》을 반대하는 론문을 집필하여 발표하였으며 1887년에는 장편소설 《나를 건드리지 말라》를 써서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 수도원의 전횡과 범죄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일련의 작품들은 필리핀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이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외국에 망명해있던 필리핀민족부르쥬아지들과 소부르쥬아지식인들속에서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인 1889년초에 마드리드에서는 필리핀망명자들과 에스빠냐자유주의부르쥬아대표들이 망라된 에스빠냐-필리핀련맹이 조직되고 기관지 《라 솔리다리달》(《련대성》)이 발간되였다. 이 출판물은 필리핀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데 적극이바지하였다. 련맹의 주위에는 선진적인 필리핀사람들이 망라되였는데 호세 리쌀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에스빠냐-필리핀련맹의 강령은 신흥필리핀민족부르쥬아지들의 정치, 경제적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이 강령의 작성자들은 에스빠냐정부의 방조를 받아 개혁을 진행할것을 기대하고있었다. 이 강령에서 민족부르쥬아지들은 필리핀을 에스빠냐국가의 한개 지역으로 남겨두는 조건에서 수도승들의 추방, 교육과 소송, 재판법의 개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 항해의 발전, 철도 및 도로의 건설, 관세률의 조절, 에스빠냐국회(코르테스)에서의 필리핀대표의 평등한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개혁을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개혁강령은 그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저들의 정치, 경제적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문제들만 내놓고 필리핀인민들에게 있어서 근본문제인 에스빠냐식민지통치의 청산, 노동자들의 생활개선, 지주토지소유의 청산 등과 관련한 반침략적이며 반봉건적인 투쟁과 업들은 내놓지 못하였다.

에스빠냐-필리핀련맹의 강령과 그 조직의 활동은 초기에는 봉건절대주의적이며 중세

기적인 암흑이 지배한 필리핀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졌으나 그후 필리핀민족해방운동에 큰 해독을 끼쳤다. 그것은 평화적방법으로 식민지적압박을 폐지할수 있다는 환상을 필리핀인민들속에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때문이었다.

호세 리살은 1892년에 필리핀에 돌아와 부르쥬아 및 소부르쥬아지식인들과 그밖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비합법적조직인 필리핀동맹을 조직하였다. 필리핀동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필리핀의 독립을 이룩하며 농업, 공업, 상업 등을 발전시킬데 대한 행동강령을 내놓았다. 이것은 필리핀동맹이 에스빠냐-필리핀련맹과 본질상차이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필리핀동맹은 이러한 본질적약점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1893년에 자기의 존재를 마치고말았다.

민족부르쥬아지들의 개량주의운동이 실패하고있던 시기에 필리핀에는 부르쥬아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화적방법에 의한 개혁사상과는 달리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근로인민출신의 혁명가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자가 안드레아스 보니파씨오(1863-1897)였다.

그는 마닐라교외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심부름꾼, 점원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는 1892년 호세 리살이 조직한 필리핀동맹에 가입하였으나 조직이 제기한 민족개량주의적구호에 환멸을 느끼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조직을 조직하는데 착수하였다.

안드레아스 보니파씨오는 1892년 7월에 비밀조직인 카티푸난(인민의 아들들의 최고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조직에는 처음에 빈농민들과 도시빈민들, 그밖에 필리핀동맹에서 탈퇴한 하층인민출신들과 급진적소부르쥬아지식인들이 망라되었다. 1894년에 카티푸난은 산속의 동굴속에서 비밀모임을 가지고 무장폭동준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1895년부터 무장폭동준비를 다그쳤다. 1896년초에는 지하신문인 《카라이얀》(자유)을 발간하여 인민들속에 민족자주의식과 투쟁의식을 심어주었다. 카티푸난은 급속히 장성하여 그 성원이 1896년초에는 300명이였다면 그해 8월에는 3만명을 넘게 되었다.

보니파씨오가 이러한 역량에 기초하여 동료들과 무기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을 때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그들의 지하인쇄소를 찾아내어 비밀문건들을 모조리 압수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보니파씨오와 그의 동료들은 투쟁준비가 완수되지 못한 조건에서 폭동을 앞당겨 일으켜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1896년 8월 23일에 발린타바크촌에 근거지를 둔 보니파씨오는 인민들에게 즉시 손에 무장을 잡고 에스빠냐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해방전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이 바로 발린타바크호소였다. 이 호소에 따라 루손섬의 중부 및 남부지방의 전체 카티푸난성원들이 일떠섰으며 멀리 떨어진 빠나티, 민다나오 및 쑈루섬에서도 무장폭동이 일어났다. 8월 27일 발린타바크부근에서 있는 첫 무장충돌에서 폭동군은 잘 무장하지 못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용감히 싸워 에스빠냐경찰부대의 공격을 좌절시켰다. 까위떼와 마닐라남부 등 여러 지방들에서 카티푸난은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계속 대오를 확대강화하면서 도처에서 에스빠냐침략자들을 죽ിച്ച다.

필리핀인민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에스빠냐식민지당국은 루손섬의 8개 중심지역들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만적인 대중적학살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악에 받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류형지에서 돌아온 호세 리쌀이 카티푸난폭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여 1896년 12월 30일에 총살하였다.

필리핀민족부르조아지와 소부르조아지식인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가지고있던 리쌀에 대한 총살은 그들속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커다란 분노를 폭발시키고야말았다. 이리하여 극반동층을 제외한 부르조아지, 소부르조아지, 일부 자유주의지주들까지도 항쟁투쟁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틈을 리용하여 필리핀인민의 극악한 반역자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로 굴러떨어진 에밀리오 아기날도도당이 투쟁대렬에 끼여들었다.

인민대중의 항쟁투쟁의 흐름을 타고 혁명에 참가한 부르조아지와 자유주의지주들은 인민혁명을 저들의 계급적지배권을 장악하는데로 유리하게 돌리려고 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카티푸난의 전투적호소에 호응하여 일떠선 필리핀인민대중은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을뿐만아니라 자기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둘째 단계는 아기날도도당의 배신행위로 혁명의 전취물을 체계적으로 빼앗긴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혁명진영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서로 대립되는 세력은 카티푸난안에서 보니파씨오를 지도자로 하는 마그디왕파와 까위떼자유주의지주출신인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마그달로파였다.

까위떼지방에서 군사적승리를 이룩한 후 1897년 3월 폭동지역들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어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중앙정부의 대통령으로는 부르조아지의 대표자인 아기날도가, 내무상으로는 보니파씨오가 당선되었다.

아기날도도당은 보니파씨오가 반혁명음모를 꾸민다는 허위적인 고발을 하여 그를 배신적으로 살해하였다. 뒤이어 카티푸난도 해체되었다. 보니파씨오의 학살과 아기날도의 정권장악은 필리핀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타협적인 부르조아지의 운동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1897년 11월 1일 배신적인 아기날도파는 비아크 나 바토에서 필리핀공화국립시헌법을 채택하고 카티푸난이 창설한 주권기관을 아기날도파의 정부로 교체하였다. 아기날도의 이러한 배신행위는 혁명력량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키고 원수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혁명진영안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령도권을 혁명의 배신자이며 극악한 반동인 아기날도도당이 장악한 기회를 리용하여 필리핀인민혁명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한편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필리핀인민의 혁명투쟁을 말살하려고 날뛰었다.

음흉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행정, 사법분야에서의 《개혁》과 조세의 조정, 신분의 불가침, 출판과 집회의 자유, 카톨릭교승려교단의 추방 등의 달콤한 《약속》들을 들고나왔다.

1897년 11월 18일 비아크 나 바토에서 아기날도파와 에스빠냐총독사이에 담판이 진행되고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저들이 들고나온 기만적인 약속을 조약에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대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아기날도와 그의 지지자들이 필리핀에서 떠나는 대가로 80만peso를 지불할것을 약속하였다.

아기날도도당은 투항변절하였으나 필리핀인민은 비아크 나 바토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 완강하게 벌리었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회담에서 《약속》한 그 어느 하나의 개혁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필리핀인민은 물론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타협적태도를 취하였던 지주-부르쵸아지들까지도 불만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898년 2월부터 필리핀전국에서는 에스빠냐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이 다시 앙양되었다.

필리핀인민은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려 1898년 4월 17일 필리핀무리섬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에서 지방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필리핀인민의 투쟁이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서자 아기날도도당은 어떻게 하면 반에스빠냐투쟁이 승리한 후 정권을 장악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골몰하게 되었다. 결국 아기날도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밑에 정권을 장악할 흥계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지배층은 필리핀강점계획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각종 모의를 벌리고 있었다. 미제는 이미 1897년 9월에 미해군차관 쉐어더 루즈벨트, 해군장관 롱그, 대통령 맥킨리와 함께 필리핀강점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아기날도도당이 미국의 원조를 구걸하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지배층은 쾌재를 불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미국-에스빠냐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전인 1898년 3월에 홍콩에 가있던 아기날도는 미제와 비밀리에 협상을 벌리었다. 교활하고 음흉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협상에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애써 감추고 필리핀무리섬전체를 《해방》한 다음에 필리핀의 독립운동에 《원조》를 제공하겠다는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의 지지밑에 필리핀민족해방운동의 령도권을 장악하며 혁명승리후에 정권을 장악할 꿈을 꾸고있던 아기날도도당은 이 협상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비아크 나 바토조약에서 약속한 《개혁》을 집행하지 않는데 대한 필리핀부르쵸아지들의 불만의 표시였다.

미제는 필리핀인민의 《독립》이나 《승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다가오는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필리핀민족해방군의 무력을 리용하려는 타산으로부터 아기날도도당에게 필리핀의 《독립》과 《자유》를 약속하였던것이다.

필리핀에서 에스빠냐군을 격퇴하는데서 필리핀민족해방군의 덕을 최대한으로 본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단 저들의 침략목적이 이루어지자 《해방자》, 필리핀민족해방운동의 《지지자》, 《벗》이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저들의 침략적,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필리핀을 저들의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결국 필리핀혁명군을 배신적으로 공격함으로써 1899-1901년 미국-필리핀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은 60여만의 필리핀인민을 학살하고 필리핀을 저들의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1896-1898년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한 필리핀인민의 혁명투쟁은 초기에는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령도권을 장악한 부르쵸아지들의 대표자인 아기날도도당의 배신행위로 필리핀혁명은 실패하고 나중에는 미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필리핀인민은 피어린 투쟁으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몰아냈으나 진정한 독립을 얻을수 없었으며 또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한 필리핀인민의 투쟁은 귀중한 역사적교훈을 남기었다.

그 교훈은 무엇보다먼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적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당시 필리핀에는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는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필리핀인민의 혁명투쟁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는 실패하게 되었다.

교훈은 다음으로 부르조아지들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그 사소한 현상과도 즉시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혁명투쟁에 기여든 아기날도를 비롯한 부르조아지들은 악랄한 배신행위를 감행하였으나 혁명진영내에서는 이러한 배신행위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교훈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필리핀인민의 혁명투쟁사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서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었다.